

# 성취도 평가 채점도 관리도 '엉망'

### 교과부 지난 10월 평가 재조사, 답안지 65만장 분실·오류 1만 6,400여건

### 광주 동·서부교육청 경고, 전남교육청 등 6곳 주의 조치

지난해 10월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시험을 치를 당시 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엉망인 '부실 덩어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의 답안지 관리 소홀로 65만 장이 분실됐고, 성적을 집계해 프로 그래프에 입력·보고하는 과정에서 1만6천400여건의 오류가 발생했다.

교과부는 답안지 분실의 책임을 물어 광주·전남에선 광주 동부와 서부 교육청에 경고를, 무안, 신안, 나주, 여수, 광양교육청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전남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주의 조치를 취해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학업성취도 평가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리 부실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성적 재집계 과정에서 드러난 일선 학교의 시험 사후 관리 시스템이 '엉망'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우선 시험이 끝난 뒤 일정 기간 보관이 돼야 할 답안지가 65만장이나

사라졌다. 65만장은 전체 답안지(900만장)의 7.2%에 해당하는 수치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교사 전보, 교실 변경, 학교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인한 교사의 관리 소홀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적을 잘못 보고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학교에서 고의로 답안지를 폐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청 자체 조사 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답안지 폐기 사례가 광범위하게 나타난 서울, 대구, 대전, 전북 등 4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경고를, 전남, 충남, 경북 등 3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180개 지역 교육청 중에선 광주 동·서부 교육청 등 32곳에 대해 경고를, 무안, 신안, 나주, 여수, 광양 등 31곳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이번 성적 재집계 결과, 미달 학생 비율 등의 경향은 지난 2월 발표됐던 것과 대체로 비슷했다. 16개 시·도교육청의 5개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초6의 경우 1.5~3% (광주 2.26, 전남 1.94), 중3은 6.2~13% (광주 8.62, 전남 11), 고1은 4~12.6% (광주 4.68, 전남 7.1)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전남 '단비'

### 남해안지방 5~20mm

광주·전남지역은 14일 오전까지 비가 온 뒤 개졌으며, 이날 하순부터 한 달 동안은 쾌청한 봄 날씨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3일 "14일 광주·전남은 남해상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비의 양은 여수 등 남해안지방은 5~20mm, 그 이외의 지역은 5mm 미만으로 예상된다.

이달 하순부터 한 달 동안은 맑은 날이 계속되는 전형적인 봄날씨가 예상된다. 강수량은 평년(113.1mm)과 비슷하거나 적어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기간에는 여름 못지않은 날씨가 2~3일씩 계속되는 고온현상이 잦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2분  
해질 19시 04분

달출몰 23시 52분  
달질 08시 34분

**벚꽃 '우수수'**

오전 한때 비가 조금 내린 뒤 개졌다.

| 구분  | 구름 많음    | 12/24°C |
|-----|----------|---------|
| 광주  | 구름 많음    | 12/19°C |
| 목포  | 구름 많음    | 13/20°C |
| 여수  | 흐리고 한때 비 | 13/21°C |
| 완도  | 흐리고 한때 비 | 11/24°C |
| 구례  | 흐리고 한때 비 | 12/21°C |
| 해남  | 흐리고 한때 비 | 12/23°C |
| 장흥  | 흐리고 한때 비 | 12/23°C |
| 고흥  | 흐리고 한때 비 | 9/20°C  |
| 순천  | 흐리고 한때 비 | 12/20°C |
| 영광  | 구름 많음    | 11/23°C |
| 진도  | 흐린 뒤 맑음  | 11/23°C |
| 남원  | 구름 많음    | 11/15°C |
| 속산도 | 구름 많음    | 11/15°C |

| 바다        | 풍향   | 파고       | 밀물       | 썰물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북동~북 | 0.5~1.0m | 목포 04:58 | 10:04 |
| 면바다       | 북동~북 | 1.0~1.5m | 16:37    | 21:55 |
| 남해 서부 앞바다 | 북동~북 | 1.0~1.5m | 여수 11:07 | 05:26 |
| 면바다       | 북동~북 | 1.5~2.5m | 23:55    | 17:07 |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짜    | 15(수) | 16(목) | 17(금) | 18(토) | 19(일) | 20(월) |
|-------|-------|-------|-------|-------|-------|-------|
| 날씨    | ☁     | ☁     | ☀     | ☀     | ☀     | ☁     |
| 최저/최고 | 11/21 | 8/17  | 6/21  | 9/26  | 10/27 | 13/16 |

## 구례, 초등 영어 부진아 가장 적다

### 학력미달 0.4%

구례지역 초등학교 6학년의 영어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과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례지역 초등학교 6학년의 영어 과목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0.4%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1%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특히 서울(2.8%)과 경기(3.0%), 부산(1.5%), 대구(3.3%) 등 대도시 지역과 비교해 보도 그

격차가 크다.

구례는 과학과목에서도 0.7%로, 강원 양구·전북 인실(0.5%) 등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밖에 수학 0.7%(전국평균 1.41%), 국어 1.4%(2.35%), 사회 2.2%(2.26%) 등 나머지 과목도 전국 평균보다 낮게 조사됐다.

이는 구례교육청의 농어촌 학교의 특성을 활용한 방과후 학급 확대와 교사-학생간 일대일 교육 등의 결과물로 분석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해병대전우회 U대회 유치기원 성화봉송

해병대전우회 광주연합회는 1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민주의 종각 앞에서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기원 성화봉송 행사를 열었다. 해병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전개되는 성화봉송은 지난 11일 한라산을 출발, 15일까지 전국을 돌며 진행된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 성취도 평가 채점 교육청 단위로 전환

### 교과부, 개편안 마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채점 방식을 개별 학교 단위에서 교육청 단위로 전환하고, 초등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시·도 교육청 주관의 진단평가로 통합하는 등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교과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초·중등학교 모두 표준화된 OMR 카드를 사용하고 시험감독은 복수로 이뤄진다. 또 채점은 교육청이 별도 채

점단을 구성, 일괄 채점하고 결과 보고는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집계된다.

교과부는 또 초·3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교과학습 진단평가와 통합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국가수준에서는 10월에 초6, 중3,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만 치러지고, 초등학교 3학년생은 시·도교육청이 3월 초4~중3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진단평가를 함께 치르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대, 학생부 반영 교과군 통합

### 2010 입학전형 기본계획

전남대는 13일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교과군을 통합하고 일부 모집단위 면접전형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0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과 관련해 사회·국사, 도덕·윤리로 구분돼 있던 교과목을 사회·도덕 교과군으로 통

합하는 등 조정하고 1학년반 반영하던 성적은 2·3학년 인문·예체능 계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인문대학 모집단위에서는 제2외국어 및 한문 교과군이 새로 반영된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학년별 반영 비율도 동일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수시 및 정시모집 반영비율은 1학년 30%, 2학년 40%, 3학년 30%로 일괄 적용된다. 수시모집 심층면접

반영비율은 29%에서 45%로 대폭 올리지만 정시 나공에서는 79개 모집단위 중 49개에서는 면접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안학교 학생과 농업인 후계자를 위한 독자전형인 신설돼 철학과, 식물생명공학부, 수학·통계학부 등에서 11명을 따로 뽑는다. 이와 함께 수시모집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신설해 128명을 선발한다.

전남대는 오는 23일 오후 4시 국제회의동 운동장에서 각 고교 진학상담실장과 학부모,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설명회를 갖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개인택시 신규면허 5년간 '0'

### 광주시 소극행정에 운전자들 반발

광주시가 택시의 증차범위 등을 정하는 노사정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무려 5년 동안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중단, 소극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하반기 개인택시 면허 96대가 발급된 이후 현재까지 신규 발급된 면허는 단 한 건도 없다. 시는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2005년 택시총량제 영역을 실시해 택시 증·감차안을 도출했으나,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현재 광주시에는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가 25대에 달해 노사정위의 합의 절차 없이 25건의 면허를 내줄 수 있는 상태인데도 이를 시행치 않아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가 택시의 증차범위 등을 정하는 노사정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무려 5년 동안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중단, 소극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하반기 개인택시 면허 96대가 발급된 이후 현재까지 신규 발급된 면허는 단 한 건도 없다. 시는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2005년 택시총량제 영역을 실시해 택시 증·감차안을 도출했으나,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 노인건강타운 직원 공모

### 경쟁률 28 대 1

노사정위에 참여한 19명의 이해 당사자가 가운데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측이 영업권 위축 등을 이유로 증차에 부정적이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고대하며 박봉을 견뎌온 200여명의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신규 면허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26년차, 20년 이상 운전자 50여명, 18년 이상도 182명에 달한다.

광주 개인택시 면허대기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개인 택시만을 바라보고 수십년 힘든 생활을 견뎌왔는데 광주시의 미온적인 행정으로 대기자

13일 시에 따르면 직종별로는 영양사가 1명 모집에 51명이 접수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사회복지사 간호사, 전기직종도 모두 30대1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재단법인 빛고를 노인복지재단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15일 재단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16일부터 3일 간 면접시험을 거쳐 2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윤현석기자 chadol@

# 택시요금도 카드로!!

## 광주광역시 공식지정 브랜드 택시

# 11call

## 엔콜

# 1688-3336

**신안면허증 소지자 혜택**

- ▶ 택시요금 할인
- ▶ 교통카드 충전 시 10% 할인 혜택
- ▶ 카드결제 서비스
- ▶ 전·신용카드 및 교통카드(10000)로 결제가능

문의처 / 고객센터

**1688-0287**

응답센터

**1688-5500**

콜센터

**1588-0848**